

# 한국 신화의 보편적 성격과 신화적 의미\*

## —〈삼승할망본풀이〉를 중심으로—

정 제 호\*\*

### < 目 次 >

I. 머리말	III. 산육신과 질병신 대립 구조의 보편적 성격
II. 여타 신화와 견주어 살핀 〈삼승할망본풀이〉의 신화적 출생	IV. 맺음말

**Key Words** : 삼승할망본풀이(samseunghalmangbonpuri), 산육신(god of birth), 질병신(god of disease), 신화적 출생(god's birth), 재앙 옮기기(disaster move)

### < 要 旨 >

본고는 한국 신화의 보편적 성격을 점검하고, 세계 신화와의 비교를 통해 개별 신화의 의미를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제주도에서 전승되는 〈삼승할망본풀이〉와 여러 신화의 비교 작업을 수행하였다. 〈삼승할망본풀이〉가 한국 신화를 대표하는 작품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아니 오히려 한국 신화 중에서도 특수성을 갖는 작품이라 하겠다. 하지만 오히려 이런 특수성 속에서도 보편적 성격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이 비교 연구의 진정한 의미 지향이라 생각한다.

〈삼승할망본풀이〉를 관통하는 주요 지점은 산육신과 질병신의 대립에 있다. 이 대립의 과정과 결과에 의해 〈삼승할망본풀이〉의 가치 지향이 규정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질병신은 산육신과 출산 방식을 놓고 대립하게 되는데, 비정상적인 출산을 시도하면서 자신의 지위를 잃게 된다. 거드랑이를 통한 출산을 시도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는 신화적 문맥으로 살펴보면 신의 출생으로 볼 수 있다. 알영, 주몽, 젓부기 삼형제, 석가모니, 육종의 여섯 아들, 위미르가 낳은 요툰 등 아주 많은 신적 존재가 거드랑이를

\* 이 논문은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4S1A5B4038127)

\*\*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전임연구원, 한국고전문학 전공

통해 탄생하기 때문이다. 여러 신화와의 비교 작업을 통해 <삼승할망본풀이>가 신의 출생에서 인간의 출생으로 이행되는 서사이며, 이 과정에서 산육신이 교체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그런데 대립에서 패배한 동해용왕따님애기는 자리를 잃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저승할망으로 좌절하면서 자신의 성격을 정반대로 변모시킨다. 구삼승할망이 질병을 내리는 질병신으로 탈바꿈한 것이다. 이러한 급작스런 변화는 새로운 산육신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재앙 옮기기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떠나가는 신격에게 재앙을 모두 옮김으로써 새로 탄생한 산육신의 위상이 높아지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는 일본 《고지키》에 나타난 이자나기와 이자나미의 관계, 그리고 유대신화에서의 릴리트와 아담의 관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들 신화는 질병과 죽음을 담당하는 신격의 대척점에 산육과 생산을 담당하는 신격을 내세움으로써 그 직능과 성격을 분명하게 가져가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결국 동해용왕따님애기가 보이는 급격한 변모의 의미가 여러 신화를 견주어 살펴으로써 보다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할 수 있다.

## I. 머리말

우리 신화의 지평을 넓히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세계 여러 신화와의 비교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가까운 동아시아를 넘어 세계 각국의 신화와 우리 신화의 비교를 통해 보다 풍부한 연구 성과를 배출할 수 있었다. 자신들의 신이나 영웅을 노래하는 구비전승의 형태는 어느 특정 국가나 민족만의 전유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 물론 신화의 흐름이 어떤 하나의 줄기만을 형성하는 것은 아니다. 문화적, 지리적, 경제적 토대 아래서 다양한 줄기로 또 다른 흐름들을 만들어 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다채로운 흐름 속에서도 하나로 모아질 수 있는 단서들을 모아 견줄으로써 보편적 성격을 확인하고, 다시 개별 신화의 이해에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하겠다. 이런 이유로 신화 연구에 있어서 비교 작업은 당연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고 역시 비교 연구의 방법으로 우리 신화 한 편을 다루고자 한다. 본고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대상은 제주도에서 서사무가의 형태로 전승되는 <삼승할망본풀이>이다. <삼승할망본풀이>는 제주도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전승되는 신화이다. 민간신앙의 차원에서는 산육신에 대한 믿음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에 비해 신화로서 존재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삼승할망본풀이>의 존재는 매우 특별하다 할 수 있다. 이러한 중요성으로 인해 <삼승할망본풀이>는 다양한

연구 성과를 제출한 바 있다.<sup>1)</sup>

필자 역시 <삼승할망본풀이>에 대한 연구<sup>2)</sup>를 진행한 바 있다. <삼승할망본풀이> 연구가 다양한 성과를 배태하였지만, 여전히 핵심적인 문제들이 남아 있었다. 이에 세 가지 방향의 의문점을 제시<sup>3)</sup>하였고, 그 중 하나의 문제에 천착하여 논의를 진행하였다. 본고는 앞선 논의에서 제시한 의문점들을 풀어내고자 하는 연장선상에 있다. 필자는 앞선 논의를 통해 <삼승할망본풀이>에 나타난 신격의 특성과 신화적 의미를 논하였다. 본고에서는 여기에 더 해, <삼승할망본풀이> 연구의 외현을

- 1) <삼승할망본풀이> 연구는 크게 빛으로 구분하여 살필 수 있다. 첫째, 제의를 중심으로 <삼승할망본풀이>의 의미를 살핀 연구로 이수자와 김은희의 연구가 여기에 속한다. 이수자 「제주도 무속과 신화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8; 이수자 「무속신화 <생불할망본풀이>에 나타난 여신상, 여성상」, 『이화어문논집』 14, 이화어문학회, 1994; 이수자 「삼신신앙의 기원과 성격 -불도맞이 및 생불할망본풀이와 관련하여-」, 현용준박사 화갑기념논총 간행위원회 편 『제주도언어민속논총』, 제주문화, 1992; 김은희 「제주도 <불도맞이>와 서울 <천궁불사맞이> 비교」, 『한국무속학』 30, 한국무속학회, 2015. 둘째, <삼승할망본풀이>에 나타난 신들의 대립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있다. 김현선, 권복순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김현선 「<삼승할망본풀이>의 여신 투쟁이 지니는 신화적 의미」, 『민속학연구』 17, 국립민속박물관, 2005; 권복순 「<천지왕본풀이>와 <삼승할망본풀이>의 인물의 기능과 그 의미 -신직차지하기 경쟁신화소를 중심으로-」, 『어문학』 116, 한국어문학회, 2012. 셋째, <삼승할망본풀이>의 주요 소재인 ‘꽃’을 중심으로 여타 신화나 장르와 견주어 살핀 논의가 있다. 현승환 「생불꽃 연구」, 『백록어문』 13, 제주대학교 국어교육과 백록어문학회, 1997; 유효철 「서천꽃밭의 형상과 의미 연구 : <이공본풀이>와 <삼승할망본풀이>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김창일 「무속신화에 나타난 꽃밭의 의미 연구」, 『한국무속학』 11, 한국무속학회, 2006. 마지막으로 <삼승할망본풀이>의 서사적 기원을 ‘당신(堂神)본풀이’에서 찾은 연구도 있다. 강정식 「할망본풀이의 전승양상」, 경기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발표논문, 2003; 이현정 「제주도 서사무가 <할망본풀이>의 형성원리 연구 -<할망본풀이>와 <일뤼당본풀이>의 영향관계를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선행 연구에 대한 자세한 정리는 필자의 앞 선 연구에서 제시한 바 있다. 본고에서는 논의의 중복을 피하고자 간략하게 언급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정제호 「<삼승할망본풀이>의 서사 구성과 신화적 의미」, 『한국무속학』 32, 한국무속학회, 2016, pp.194-196
- 2) 정제호 「<삼승할망본풀이>의 서사 구성과 신화적 의미」, 『한국무속학』 32, 한국무속학회, 2016.
- 3) 필자가 제시한 세 가지 의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왜 <삼승할망본풀이> 서사에서 주신인 명진국따님애기가 아닌 동해용왕따님애기가 오히려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할까? 둘째, <삼승할망본풀이>가 마마신의 본풀이인 <마누라본풀이>와 서사적으로 연결되는 맥락을 갖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셋째, <삼승할망본풀이>에서 선신과 악신이 대립하고, 그 결과로 산육신과 질병신으로 좌정하는 서사는 독자적인 것일까?” 본고에서는 세 번째 의문에 초점을 맞춰 비교 연구의 관점에서 <삼승할망본풀이>를 살피고자 한다.

넓혀 여러 신화의 비교 작업을 수행하여 논의를 확장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삼승할망본풀이> 연구에서 비교의 대상은 ‘꽃 피우기 내기’ 화소를 공유하는 창세신화들로 한정된 편이었다.<sup>4)</sup> 하지만 창세신화에 나타난 ‘꽃 피우기 내기’ 화소와 <삼승할망본풀이>의 의미 지향에는 일정한 차이가 존재한다. 그리고 오히려 <삼승할망본풀이>에는 여러 신화들과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존재함에도 여기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지 못한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하겠다. 때문에 본고를 통해 다양한 신화들과 <삼승할망본풀이>를 비교 연구함으로써 보편적인 시각에서 무가의 의미를 풀어내고자 한다.

특히 <삼승할망본풀이>에서 주목할 부분은 산육신(産育神)인 ‘명진국따님애기’와 질병신(疾病神)인 ‘동해용왕따님애기’의 대립의 과정과 그 결과이다. 명진국따님애기와 동해용왕따님애기의 대립은 단순히 선신(善神)과 악신(惡神)의 대립으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산육신과 질병신의 기원을 설명하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더욱이 이들의 성격이 단순히 선과 악으로만 제시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과정을 면밀히 살펴, 대립의 결과와 연결 짓는 작업이 필요하다. <삼승할망본풀이>는 산육신의 내력을 푸는 신화임에도 질병신인 저승할망에 대한 서사가 길게 이어지는 등 특별한 전개 양상을 갖는다.<sup>5)</sup>

4) 김현선, 앞의 논문; 권복순, 앞의 논문.

5) <삼승할망본풀이>의 서사를 간략하게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① 동해용왕과 서해용왕 따님이 결혼 후 마흔이 되도록 자식이 없자, 관음사에 백일기도를 드리고 딸을 낳는다.
- ② 귀한 딸을 너무 극진히 길러, 딸은 불효하는 죄를 짓는다.
- ③ 죄를 지은 딸을 동해용왕이 죽이려 하자, 부인이 무쇠석함에 넣어 동해로 보내게 한다.
- ④ 동해용왕따님애기가 어머니에게 인간에 가서 무엇을 하냐고 묻자, 어머니는 생불왕이 되도록 알려준다.
- ⑤ 하지만 아버지의 호령에 해신시키는 방법은 듣지 못한다.
- ⑥ 석함은 떠다니다가 임박사에게 전해지는데, 임박사는 자식이 없어 동해용왕따님애기에게 생불을 부탁한다.
- ⑦ 동해용왕따님애기는 임박사 부인을 임신시키지만, 해산시키는 방법을 몰라 겨드랑이로 아이를 낳으려다 결국 산모와 아이를 모두 잃고 만다.
- ⑧ 겁이 난 동해용왕따님애기는 도망쳤고, 억울한 임박사는 옥황에 신원한다.
- ⑨ 옥황은 임박사의 사정을 듣고, 명진국 따님애기를 불러 생불왕이 되게 한다.
- ⑩ 명진국따님애기는 잉태시키는 방법과 출산시키는 방법을 모두 배우고 인간세상으로 내려온다.
- ⑪ 명진국따님애기가 인간 세상에 내려와 물가에 이르러 울고 있는 동해용왕따님애기를 만난다.

신격 좌정에 있어서도 산육신의 좌정만을 증점적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산육신과 질병신이 대립의 결과로 각각 이승과 저승으로 나누어 좌정하는 모습을 함께 그리고 있다. 이러한 특이성에 대한 논의를 앞서 진행한 바 있지만, 보다 넓은 영역으로 논의를 이끌어 나감으로써 보다 분명한 근거들을 함께 살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에 비교 연구를 통해 <삼승할망본풀이>의 보편적 성격을 검토하고, 더 나아가 이 신화가 갖는 의미를 도출하고자 한다.6)

- ⑫ 명진국따님애기가 자신이 생불왕임을 밝히자, 동해용왕따님애기는 화를 내며 마구 매질을 하였다.
  - ⑬ 명진국따님애기는 옥황의 분부대로 하자고 하며 함께 옥황으로 오른다.
  - ⑭ 판단하기 어려운 옥황은 꽃씨를 내어주며, 꽃이 번성하는 거승로 생불왕을 구별한다고 한다.
  - ⑮ 동해용왕따님애기는 꽃뿌리도 하나, 가지도 하나, 순도 하나가 겨우 돌아 가는 꽃이 되었는데, 명진국따님애기는 뿌리는 하나인데 가지는 4만5천6백 가지로 번성하였다.
  - ⑯ 옥황은 동해용왕따님애기는 저승할망으로 들어서고, 명진국따님애기가 삼승할망으로 들어서게 한다.
  - ⑰ 그러자 동해용왕따님애기는 화를 내며 명진국따님애기의 꽃가지를 꺾고, 아기가 태어나면 온갖 병에 걸리게 한다고 말한다.
  - ⑱ 명진국따님애기는 동해용왕 따님애기를 달래며, 그녀가 모셔질 수 있게 하여 서로 화해한다.
  - ⑲ 두 처녀는 작별잔을 나누고 헤어진다.
  - ⑳ 명진국따님애기는 생불왕으로 좌정한다.
- 6) <삼승할망본풀이>의 각편 현황은 다음과 같다. 본고에서는 선본(善本)으로 평가받는 안사인본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되, 필요에 따라 다른 각편들도 함께 참고하도록 하겠다.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각, 2007.

	각편명	문헌	구연자	조사자	발행시기
1	<할망본풀이>	제주도무속자료사전	안사인	현용준	1980
2	<구할망본>	풍속무음 下	문정봉	문창현	1994
3	<삼승할망본풀이>	제주도무속신화	진부옥	문무병	1998
4	<삼승할망본풀이>	제주도 무속과 서사무가	이정자	장주근	1999
5	<명진국할마님본풀이> <동이용궁할망본풀이>	이용옥 심방 <본풀이>	이용옥	허남춘 외	2008
6	<명진국할마님본풀이>	양창보 심방 본풀이	양창보	허남춘 외	2010
7	<인간불도할마님본풀이> <동이용궁할마님본풀이>	고순안 심방 본풀이	고순안	허남춘 외	2011
8	<명진국할마님본풀이> <동해용궁할마님본풀이>	서순실 심방 본풀이	서순실	허남춘 외	2015

## II. 여타 신화와 견주어 살핀 〈삼승할망본풀이〉의 신화적 출생

주지하다시피 그간 <삼승할망본풀이>의 비교 대상은 ‘창세신화’가 주를 이루었다. 그 이유는 <삼승할망본풀이>에 나타난 ‘꽃 피우기 내기’ 화소 때문이다. 이 꽃 피우기 내기 화소는 주로 창세신화에 등장하는 화소로, 창세신들의 대립에서 활용되었다. 우리나라 창세신화 중 가장 대표적인 작품으로 <창세가><sup>7)</sup>를 들 수 있다. 석가와 미륵의 ‘인세차지 경쟁’에서 승부를 가르는 핵심적인 대립은 바로 ‘꽃 피우기 내기’이다. 이 내기에서 속임수를 통해 석가가 승리하면서 인간 세상은 석가의 차지가 되고, 미륵은 자리를 잃게 된다.

그런데 창세신화에서의 꽃 피우기 내기 화소와 <삼승할망본풀이>에서의 꽃 피우기 내기는 중요한 차이점을 갖는다. 꽃 피우기 내기 화소에서 중요한 지점은 단순히 꽃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속임수로 인해 승패가 바뀐다는 것이다. 이 속임수가 창세신의 좌정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작품을 관통하는 중요 요건이 된다.

하지만 <삼승할망본풀이>에서는 어떠한 속임수도 등장하지 않는다. 산육신인 명진국따님애기가 많은 꽃을 피우고, 질병신으로 쫓겨나는 동해용왕따님애기는 단 한 가지만을 피우기 때문이다. 순리대로 승패가 나뉜다고 할 수 있다. 즉, 속임수가 중심이 되는 창세신화의 꽃 피우기 내기와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삼승할망본풀이>에 나타난 대립의 과정을 잘 살펴보면, 꽃 피우기 내기 이전에 이미 산육신과 질병신의 능력의 차이가 드러나는 지점을 발견할 수 있다.

동해용왕따님애기는 명진국따님애기에 앞서 산육신의 위치에 자리하는 인물이라 볼 수 있다. 집을 떠나며 어머니에게 출산 방식을 배우고, 출가 후 임박사의 집에서 출산을 시도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출산은 실패한다. 일반적인 출산 방식과 달리 동해용왕따님애기는 겨드랑이<sup>8)</sup>로 출산을 시도하기 때문

7) 손진태 『조선신가유편』, 향토연구사, 1930, pp.10-23

8) 각편에 따라 겨드랑이나 옆구리로 제시된다. 겨드랑이와 옆구리는 모두 협(脇)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혼용되는 경향이 있다. 본고에서는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겨드랑이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다. 이후 명진국따님애기가 옥황으로부터 정상적인 출산 방식을 배워와 산육신에 좌정하는 것과 비교한다면, 동해용왕따님애기의 시도는 잘못된 방식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차이만으로 단순히 동해용왕따님애기가 산육신으로서의 능력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한 해석이라고 하기 어렵다. 동해용왕따님애기의 시도를 신화적인 문맥에 따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거드랑이로의 출생은 여러 신화에서 ‘신의 출생’을 규정짓는 특징적인 부분으로 제시되기 때문이다.<sup>9)</sup> 즉, <삼승할망본풀이>에서 동해용왕따님애기의 행위가 단순히 출산 실패가 아닌 신의 출산 시도였음을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세계 여러 신화 속에서 유사한 사례를 통해 검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까운 예로 ‘알영’, ‘주몽’과 같은 건국신화 속에서 거드랑이를 통한 신 혹은 영웅의 출생을 살펴볼 수 있다.

① 그날 사랑리 알영정가에 계룡이 나타나 왼쪽 거드랑이에서 여자아이를 낳았다. 그녀의 얼굴과 용모는 매우 아름다웠으나, 입술이 닭부리와 같았다. 월성 북천에서 목욕을 시키자 그 부리가 떨어져 나갔으므로 그 시내의 이름을 발천이라 하였다.<sup>10)</sup>

② 왕이 천제 아들의 비인 것을 알고 별궁에 두었더니, 그 여자의 품 안에 해가 비치자 이어 임신하여 신작 4년 계해년 여름 4월에 주몽을 낳았는데, 우는 소리가 매우 크고 골상이 영특하고 기이하였다. 처음 낳을 때에 좌편 거드랑이로 알 하나를 낳았는데 크기가 닷 되들이만 하였다.<sup>11)</sup>

①은 《삼국유사(三國遺事)》에 기록된 알영의 출생에 대한 기록이다. 알영은

9) 앞 선 논의에서 필자는 이 대립을 ‘신의 출산’과 ‘인간의 출산’ 간의 대립으로 규정할 바 있다. 신성 탄생의 시대가 범인 출생이 시대로 이행되며, 동해용궁따님애기가 갖는 신의 출산 능력보다 명진국따님애기의 인간 출산 능력이 더욱 필요했고, 이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동해용궁따님애기의 능력과 권위가 명진국따님애기에게 이행되었다는 것이다. 다만 이 논의를 진행하며 알영, <초공본풀이>, 석가모니 정도만 함께 살핀 바 있다. 이에 본고를 통해 보다 다양한 비교 대상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논의를 분명히 하고, 이후 대립의 결과로 인한 신격 좌정의 양상을 함께 살펴도록 하겠다. 정제호, 앞의 논문, p.212

10) 是日 沙梁里閼英井 邊有雞籠現 而左脇誕生童女 姿容殊麗 然而唇似雞嘴 將浴於月城北川 其嘴撥落 因名其川曰撥川 <新羅始祖 赫居世王>, 《三國遺事》

11) 王知天帝子妃 以別宮置之 其女懷中日曜 因以有娠 神雀四年癸亥歲夏四月 生朱蒙 啼聲甚偉 骨表英奇 初生左腋生一卵 大如五升許 <東明王篇>, 《東國李相國集》

계룡의 거드랑이에서 태어나 박혁거세와 혼인하고, 신라의 이성(二聖)이 된다. 새 왕조의 창업주와 그의 배우자에 대한 신성성을 부여하기 위한 방식으로 인간과 다른 출산 방식이 활용된 것이다.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주몽의 탄생 역시 기록되어 있어 주목할 만하다. ②는 이규보의 《동명왕편(東明王篇)》에 제시된 주몽의 탄생에 대한 기록이다. 《삼국유사》를 비롯한 여러 기록에서 주몽이 알에 태어났다는 것은 동일하게 다룬 바 있지만, 《동명왕편》에서는 여기에 더해 유화의 거드랑이를 통해 이 알이 출산되었다고 말하고 있다.<sup>12)</sup> 난생(卵生) 화소와 함께 거드랑이 출산의 화소가 더해져 고구려의 창업주 주몽의 비범함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부분이다. 이처럼 건국신화에서 영웅들의 출생이 평범한 사람들과 다르게 그려지면서 그들의 신성성이 보다 확고해진다고 할 수 있다.

건국신화 이외에도 <삼승할망본풀이>와 같은 서사무가인 <초공본풀이>에서도 거드랑이로 출산이 등장한다. 특히 <초공본풀이>는 <삼승할망본풀이>와 같이 제주도에서 전승되는 서사무가라는 점에서 더욱 긴밀히 연결될 수 있다고 하겠다.

③ 큰아들 솟아나저 흐는디 어머니 알로 나저 흐뎨 아버님이 아니 보아난 7못질이여. 어머니 7단 7드랭이 허우투어 큰아들 솟아나고, 여레드레 큰당흐난 셋아들 솟아나저 알로 낳저 아버님이 못내본 7못이라, 우리 성님도 아니 나와난 질이여 윈 7드랭이 허우투어 솟아나고, 수무드레 죽은아들 솟아나저 흐니 알로 낳저 아버님이 못내본 7못이라, 우리 삼성제 솟아나저 흐니 어머니 가십인덜 아니 답답하리야. 어머니 애스 가십 허우투어 솟아나, 초사흘 당흐니 모욕상잔 내여놓고 몸 모욕을 시기니 어머니 내여준 상잔이 뉘웁네다.<sup>13)</sup>

③의 자료에서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각각 오른쪽, 왼쪽 7드랭이(거드랑이)에서 태어난다. <초공본풀이> 역시 인간과 다른 출산 방식을 통해 신의 출생을 그리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삼승할망본풀이>에 나타난 동해용왕따님애기의 출산 시도를 단순히 능력 부족만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12) 《제왕운기(帝王韻紀)》 등의 자료에서도 거드랑이에서 주몽이 태어났다고 기록하고 있다. 五升大卵左脇誕 陰雲之日生陽晶 <高句麗紀>, 《帝王韻紀》

13) 현용준, 앞의 책, 141쪽



게다가 겨드랑이를 통한 신의 출생 방식이 우리나라만의 특별한 예가 아니라 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세계 신화 속에서도 유사한 예를 쉽게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고다마 싯타르타(Gautama Siddhārtha), 즉 석가모니(釋迦牟尼)의 탄생이다. 석가모니는 어머니인 마야부인의 오른쪽 겨드랑이를 통하여 출생한다. 당시 인도의 카스트(Caste) 제도 속에서 사람들은 사제(司祭) 계급인 브라만과 귀족인 크샤트리아, 평민인 바이샤와 노예인 수드라, 이 네 계층으로 나뉘었다. 그런데 이 계급에 따라 사람들의 출생 방식도 달라, 크샤트리아의 경우 오른쪽 겨드랑이에서 태어난다고 믿었던 것이다. 석가모니의 경우 아버지가 국왕이었기에 크샤트리아 계급에 속해 있었고, 따라서 오른쪽 겨드랑이를 통해 출생하게 된다.<sup>14)</sup> 석가모니 역시 겨드랑이를 통해 출생됨으로써 일반적인 출산과는 다른 방식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이밖에 중국 신화에서도 유사한 예를 찾을 수 있다. 《세본(世本)》에 따르면, 육종(陸終)이 여섯 아들을 낳는데, 이 중 세 아들은 왼쪽 겨드랑이를 통해서 낳고, 나머지 세 아들은 오른쪽 겨드랑이를 통해서 낳게 된다.

④ 육종(陸終)은 귀방씨(鬼方氏)의 누이 여궤(女媧)를 아내로 맞이하였는데, 여섯 아들을 낳았다. 3년 동안 잉태하였는데도 아기가 나오지 않아 그 왼쪽 옆구리를 가르니 세 아들이 나왔다. 그 오른쪽 옆구리를 가르니 또 세 아들이 나와 첫째를 번(樊)이라고 불렀고 곤오(昆吾)가 되었다. 둘째를 혜련(惠連)이라 불렀고 삼호(參胡)가 되었다. 셋째를 전갱(錢經)이라 불렀고 팽조(彭祖)가 되었다. 넷째를 구언(求言)이라 불렀고 회인(郇人)이 되었다. 다섯째를 안(安)이라 불렀고 조성(曹姓)이 되었다. 여섯째를 계련(季連)이라 불렀고 천성(芊姓)이 되었다.<sup>15)</sup>

이렇게 다양한 신화 속에서 겨드랑이를 통한 출생의 장면을 만날 수 있다. 우리나라나 동양의 예 이외에도 북유럽신화 《에다(Edda)》에 등장하는 ‘위미르(Ymir)’가 양쪽 겨드랑이를 통해 낳는 ‘요툰(Jotunn)’을 낳았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sup>16)</sup> 즉, 세계 곳곳에서 여러 신들이 인간과는 다른 출산 방식, 즉, 겨드

14) 배진달 『세상은 연꽃 속에』, 프로네시스, 2006, p.20

15) 陸終娶于鬼方氏之妹 謂之女媧 是生六子 孕三年而不育 剖其左脇 獲三人焉 剖其右脇 獲三人焉 其一曰樊 是爲昆吾 其二曰惠連 是爲參胡 其三曰錢經 是爲彭祖 其四曰求言 是爲郇人 其五曰安 是爲曹姓 其六曰季連 是爲芊姓 <帝係>, 《世本》

16) 우리는 그를 서리 거인이라고 부른다. 그가 생겨났을 때 땀을 흘리기 시작했다고 한다.

량을 통한 탄생을 그리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비범한 탄생의 방식을 통해 신과 인간의 변별적 특성을 드러내고, 신이한 능력을 보다 강화할 수 있다. 그렇기에 <삼승할망본풀이>에서의 동해용왕따님애기의 시도 역시 달리 평가해야 하는 것이다.<sup>17)</sup>

결과적으로 보면, <삼승할망본풀이>의 동해용왕따님애기는 단순히 대립에서 패배한 삼승할망의 적대자라고 말할 수 없다. 오히려 신의 출생에서 인간의 출생으로의 이행 과정<sup>18)</sup>이 담겨 있는 <삼승할망본풀이>에서 신화적 출생을 담당하는 인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산육신의 능력이 점차 인간의 출생과 양육에 초점이 맞춰지며, 그 역할을 상실하고 산육신의 대척점에 서게 된 것이다. <삼승할망본풀이> 서사의 표면에서는 패배자로 그려지는 동해용왕따님애기이지만, 여러 신화와 견주어 살펴으로써 그녀의 행위를 신화적 문맥으로 읽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제주도에서 전승되는 특수한 신화인 <삼승할망본풀이>에 나타난 신화소를 여러 신화와 견주어 살펴으로써 기존의 시각과는 다른 해석으로 동해용왕따님애기의 성격을 규명할 수 있었던 것이다.<sup>19)</sup>

그러나 여기서 드는 한 가지 의문은 왜 패배한 전임자가 그대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기존 가치와 정반대의 위치에 서게 되느냐는 것이다. 자신의 위치를

그때 그의 왼쪽 팔 아래서 남녀가 각각 하나씩 태어났다. 한쪽 발이 다른 쪽 발과 어울려 이들을 하나 낳았고, 그로부터 모든 씨족이 비롯되었다. 이들이 서리 거인들이다. 그 늙은 서리 거인을 우리는 위미르라고 부른다. Snorri Sturluson, 이민용 역 『에다 이야기』, 을유문화사, 2013, p.30

17) 신체 다른 부분도 아닌 왜 하필 겨드랑이를 통한 출산인가 하는 의문에 답하는 것은 아직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한 가지 가설을 제시하자면, 겨드랑이와 출산을 담당하는 음부가 갖는 형태상의 유사성에 기초한 것이 아닐까 한다. 겨드랑이는 음부와 같이 신체 깊이 자리하고 있으면서, 체모로 감싸여 있다. 이러한 형태상 유사성으로 인해 유감주술(homeopathic magic)적 측면으로 활용되면서, 신들의 출산처로 자리 잡게 된 것이라는 추측이다. 인간과 다른 특별한 출산처를 찾으면서도, 완전히 다른 부분이 아니라 그나마 유사한 지점에서 신의 출산 지점을 찾다보니 겨드랑이로 제시된 것이 아닐까 한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를 통해 보다 분명한 근거들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J.G. Frazer, 이용대 역 『황금가지』, 한겨레출판, 2003, pp.83-119 참조.

18) 정제호, 앞의 논문, pp.212-213

19) <삼승할망본풀이>는 여러 신화들과 ‘겨드랑이를 통한 출산’이라는 공통점을 갖지만, 독자적인 측면 역시 분명하다. 다른 신화들이 신의 ‘출생’을 그린다면, <삼승할망본풀이>는 신의 출산을 돕는 방법을 그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삼승할망본풀이>의 명진국따님애기와 동해용왕따님애기가 하나의 신이지만, 그 속성이 산육신으로서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차이로 하겠다.

상실한 후 자연스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존재 가치를 완전히 탈바꿈하여 악신으로까지 변모하는 것은 왜일까. 이렇게 동해용왕따님애기가 악신으로 좌정하는 행위는 신화 안에서 일정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대립의 결과로 나누어지는 신격 좌정 역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부분이다. 이런 이유로 신격 좌정 결과에 주목하여 <삼승할망본풀이>를 다시 한 번 살필 필요가 있다. 이는 다음 장을 통해서 서술하도록 하겠다.

### Ⅲ. 산육신과 질병신 대립 구조의 보편적 성격

앞 장에서는 <삼승할망본풀이>에 나타난 대립의 과정을 통해 산육신과 질병신이 본래부터 대립되는 가치를 갖는 것이 아님을 논의하였다. 실상 동해용왕따님애기와 명진국따님애기는 동일한 성격을 지닌 존재였다고 하더라도 과언이 아니다. 다만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산육신의 기능이 인간의 출산과 양육을 담당하는 것으로 자리 잡게 되면서 신격의 위치 역시 변화하게 된 것이다. 그 과정에서 구삼승할망은 반대 가치를 갖는 질병신으로 좌정하였고, 새로운 산육신이 삼승할망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이다.

정리하자면, 동일한 혹은 유사한 가치와 기능을 갖는 두 신이 대립하게 되면서 이후 생산을 담당하는 산육신(생산신)과 죽음과 질병을 담당하는 질병신(죽음신)으로 나누어 좌정하는 구조를 갖는다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산육신은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척점에 서는 질병신과 함께 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 질병신의 존재가 본래부터 악으로서 탄생되고 악신으로서만 자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산육신에 가까운 혹은 산육신 그 자체로서 자리하다 대립의 결과로 악신으로 변모했다는 것이다. 즉, 동일한 성격을 가진 신이 대립하게 되고, 이 대립의 결과로 산육신과 질병신, 더 나아가 생산신과 죽음신으로 나누어 좌정하는 구조를 갖는다고 하겠다. 자신의 역할을 빼앗긴 후 그대로 사라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신으로 변모하여 다시금 새롭게 자리하는 것은 특이한 지점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제주도에서 전승되는 서사무가의 악신들은 그저 악신으로만 존재한다. 물론 <문전본풀이>의 ‘노일제데귀일의 딸’처럼 하나의 신격으로서 좌

정하는 경우<sup>20)</sup>도 있지만, 대체로 주신(主神)에게 고난을 부여하는 악인으로서의 역할에 한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초공본풀이>의 ‘삼천선비’, <이공본풀이>의 ‘장자’, <차사본풀이>의 ‘과양생의 처’ 등 다양한 악인들이 등장하지만, 악인 이상의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삼승할망본풀이>의 경우 오히려 악인이라 할 수 있는 동해용왕따님애기가 주도적으로 서사에 등장하고, 신격 좌정에 있어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이것만으로도 동해용왕따님애기는 단순히 악인으로서 주신에게 고난을 부여하는 역할만을 담당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악신에게 보다 명확한 직능이 부여될 수 있는 구조라는 것이다.

선신과 악신의 대립이라는 서사적 특성을 중심으로 <삼승할망본풀이>를 살펴보면 유사한 성격의 자료들을 쉽게 찾을 수 있다.<sup>21)</sup>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삼승할망본풀이>와 꽃 피우기 내기 화소를 공유하는 창세신화에서도 선신과 악신의 대립이 등장한다. 그런데 <창세가>에서의 대립의 결과는 석가가 인간 세상을 차지하고, 미륵은 사라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속임수를 쓴 석가에게 패배를 인정하고 미륵이 떠나가는 것이다.<sup>22)</sup> 자신이 세상을 창조했음에도 자기의 위치를 잃자 홀연히 떠나고 마는 것이다.<sup>23)</sup> 때문에 떠나지 않고 새로운 신격의 상대자로 자리하는 동해용왕따님애기와는 차이가 보인다. 결국 <창세가>에서의 대립의 결과는 <삼승할망본풀이>와는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0) <문전본풀이>에서 노일제테귀일의 딸은 측신으로 좌정한다. 단, 이 측신으로의 좌정이 문전신의 상대자로서의 위치에 서는 것은 아니다. 다만 집 안에서 가장 더러운 부분을 악신에게 맡긴다는 의미를 갖는 것이다. 노일제테귀일의 딸의 좌정 공간에 대해서는 유보경의 논의를 참고할 만하다. 유보경 「가신신화에 나타난 인물형상과 신격의 상관관계」,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21) 물론 이들 신화에 나타난 신들의 속성을 선과 악으로 분별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선과 악의 확실적 구분으로 이들의 성격을 모두 설명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다만 논의의 편의상 표면적 성격에 비추어 선악을 구분해서 쓸 뿐이다. 여기서는 선신으로서, 또 악신으로서의 성격이 중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22) 이러니서, 축축하고더럽은이釋迦야, 내무렵헤쓰치피엿슴을, 너무럽헤씩거쓰졌서니, 쏘치피여열혈이뭇가고, 심어十年이뭇가리라. 미러님이석가의너머성화를받기실허, 釋迦에게歲月을주기로마련하고, 축축하고더러운석가야, 너歲月이될나치면, 썩이마다숫대서고, 너歲月이될나치면, 家門마다妓生나고, 家門마다寡婦나고, 家門마다무당나고, 家門마다逆賊나고, 家門마다白丁나고, 너歲月이될나치면, 합들이치들이나고, 너歲月이될나치면, 三千중에一千居士나너니라. 歲月이그런즉末世가된다. 그리든三日만에, 三千중에一千居士나와서, 彌勒님이그적에逃亡하야 손진데, 앞의 책, pp.19-20

23) 물론 미륵의 귀환을 암시하기도 한다.

하지만 같은 창세신화이면서 <창세가>와 서사적 유사성을 보이는 <천지왕본풀이><sup>24)</sup>에서는 이 좌정 과정이 조금 다르게 나타난다. <창세가>와 <천지왕본풀이>는 꽃 피우기 내기에서 속임수를 쓴 신이 승리한다는 공통점을 보인다. 또한 이 승리를 통해 인간세상을 차지한다는 점도 동일하다. 다만 <천지왕본풀이>에서는 대결에 패배한 대별왕이 사라지거나 실종되는 것이 아니라 저승을 차지한다. 즉, 대결에서 이긴 소별왕은 이승을 차지하고, 진 대별왕은 저승을 차지하는 것이다. 천지왕의 쌍둥이 아들로서 창세신적 면모를 보이는 대별왕과 소별왕은 대립의 결과로 저승과 이승, 즉, 죽음과 삶을 관장하는 세계를 나누어 차지하는 것이다.<sup>25)</sup>

하나의 성격으로 비롯된 두 신이 대립을 통해 삶과 죽음의 영역을 나누어 관장하는 구조는 <삼승할망본풀이>에서 명진국따님애기와 동해용왕따님애기가 삼승할망과 저승할망으로 좌정하는 구조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두 신화 모두 대립의 결과가 삶과 죽음을 나누어 관장하는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물론 창세와 출산이라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성격 좌정의 구조적인 면에서 유사성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천지왕본풀이>에서 대별왕은 천지왕의 적자로 이승을 담당해야 하는 신격이다. 하지만 욕심 많은 소별왕의 속임수로 인해 저승으로 몰려나게 된 인물이기도 하다. 즉, 본래 자신의 역할을 잃고, 저승으로 나아간 것이다. <삼승할망본풀이>의 동해용왕따님애기 역시 본래의 성격은 신의 출산을 담당한 산육신이다. 하지만 그 역할을 새로운 산육신에게 빼앗기고 저승으로 나아가 저승할망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삼승할망본풀이>에서 동해용왕따님애기의 역할을 <천지왕본풀이>의 대별왕에 견주어 살펴으로써 그 본래적 성격이 보다 부각된다고 볼 수 있다.<sup>26)</sup>

24) 현용준, 앞의 책, pp.41-46

25) 설운 성님 대별왕이 말을 하네 “설운 아씨 소별왕아 이승법이랑 차지하여 들어사라미는 인간의 살인 역적 만하리라. 고문도독 만리라. 남죽죽식 열다섯 십오세가 돼며는 이녁 가슴 노아두고 놈의 가슴 울러르기 만하리라. 예죽죽도 열다섯 십오세가 넘어가면 이녁넙편 노아두고 놈의 넙편 울러르기 만하리라.” 법지법을 마련해야 “나는 저승법을 마련하되. 저승법은 묶고 청낭흔 법이로다.” 저승법을 차지해야 들어산다. 설운 아씨 이승법 마련하던 천지왕 본이웨다. 현용준, 앞의 책, p.45

26) 물론 <천지왕본풀이>와 <삼승할망본풀이>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 <삼승할망본풀

그런데 이렇게 이승과 저승을 나누어 맡는 것에서 더 나아가 대립의 결과로 산육신과 질병신으로 나누어 좌정하는 자료들이 있어 주목된다. 유사성이 가장 두드러지는 자료는 《고지키(古事記)》의 ‘이자나기와 이자나미’ 신화이다.<sup>27)</sup> 부부였던 이자나기와 이자나미는 대립 이후 산육신과 질병신으로 나누어 자리한다.

⑤ 마지막으로 아내인 이자나미가 직접 뒤를 쫓아왔다. 이에 이자나기는 거대한 천인 석으로 요모쓰히라사카를 가로막고, 그 바위를 사이로 서로 대치하며 이별의 말을 주고받았다. 그 때 이자나미가 말하기를, “사랑하는 나의 남편께서 이와 같은 짓을 하신다면 당신 나라 사람들을 하루에 천 명 죽일 것입니다.”라 하였다. 그러자 이자나기가 말하기를, “사랑하는 나의 아내여, 그대가 정녕 그리한다면, 나는 하루에 천오백 개의 산실을 지을 것이오.”라고 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하루에 만드시 천 명이 죽는 대신, 하루에 만드시 천오백 명이 태어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이자나미를 요모쓰오 호카미(黃泉津大神)라고도 한다. 그리고 이자나기를 뒤쫓아 왔다하여 지시키노오호 카미(道敷大神)라고도 한다. 그리고 요모쓰사카를 가로막은 바위는 지가에서노오호 카미(道反大神)라 하고, 가로막고 있는 요모쓰토노오호카미(黃泉戸大神)라고도 한다. 그리고 이 요모쓰히라사카는 지금의 이즈모노쿠니(出雲國)의 이후야사카(伊賦夜坂)이다.<sup>28)</sup>

이>에는 <천지왕본풀이>처럼 꽃 피우기 내기가 등장하긴 하지만, 결과가 속임수에 의해 바뀌는 화소가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천지왕본풀이>의 대별왕과 소별왕이 산육신과 질병신으로 좌정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천지왕본풀이> 역시 두 신격이 대립 후 좌정처가 이승과 저승으로 나뉜다는 점에서 <삼승할망본풀이>와 구조적 유사성이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27) 노성환은 <삼승할망본풀이>와 <이자나기 이자나미 신화>를 비교하여 두 자료 모두 대립형 죽음기원신화라고 논의한 바 있다. 하지만 <삼승할망본풀이>를 죽음 ‘기원’ 신화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우리 신화 중 죽음기원신화로 주로 논의되는 자료는 <차사본풀이>이다. 권태효 「인간 죽음의 기원, 그 신화적 전개양상」, 『한국민속학』 43, 한국민속학회, 2006. 또한 논자가 분류한 ‘대립형’ 역시 후쿠시마(福島秋徳)의 분류를 참고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일정한 차이가 존재한다. 노성환 「한일 죽음기원신화의 비교연구」, 『일어일문학연구』 34, 한국일어일문학회, 1999, p.333

28) 最後其妹伊邪那美命 身自追來焉 爾千引石 引塞其黃泉比良坂 其石置中 各對立而 度事戶之時 伊邪那美命言 愛我那勢命 爲如此者 汝國之人草 一日絞殺千頭 爾 伊邪那岐命詔 愛我那邇妹命 汝爲然者 吾一日立千五百產屋 是以一日必千人死 一日必千五百人生也 故號其伊邪那美神命 謂黃泉津大神 亦云 以其追斯伎斯而 號道敷大神 亦所塞其黃泉坂之石者 號道反大神 亦謂塞坐黃泉戸大神 故其所謂黃泉比良坂者 今謂出雲國之伊賦夜坂也 《古事記》上

⑤는 《고지키》에 기록되어 있는 이자나기와 이자나미에 대한 서술의 일부이다. 이자나기와 이자나미는 부부였지만, 이자나기가 이자나미를 두려워 해 달아나면서 둘의 관계는 깨지게 된다. 이 과정에서 이자나미가 이자나기의 사람들을 죽이겠다고 하면서 질병신으로서의 면모를 드러낸다. 남편에게 버림받은 분노를 그의 나라 사람들[國人]들을 죽임으로써 해소하고자 한 것이다. 여기에 대응하여 이자나기는 그보다 많은 산실[産屋]을 지어 사람이 새로 태어나게 한다. 이자나미에 반대에 서 더 많은 사람들이 탄생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즉, 두 신격이 대립 이후 산육신과 질병신으로 성격이 변모했음을 알 수 있다.

이자나미는 이자나기와 함께 일본의 국토를 창생(創生)시킨 창세신적 성격을 갖는다. 하지만 대립 이후 그 성격이 변모하여 질병신으로 탈바꿈되는 것이다. 산육신적 성격을 갖다가 질병신으로 변모하는 동해용왕따님애기의 변화와 공통점이 있다고 하겠다. 특히 이 두 신격 모두 상대에 대한 반발과 분노로 인해 질병신으로서의 성격이 분명해진다는 점에서도 유사성을 갖는다. 동해용왕따님애기는 자신이 아닌 명진국따님애기가 삼승할망이 되는 것에 분노하여, 그 분노를 아이들에게 질병을 주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한다.<sup>29)</sup> 이자나미 역시 자신의 추한 모습에 실망한 채 달아나는 남편에게 화가 나 질병신이자 죽음의 신이 되는 것을 자처한다. 두 자료 모두 자신의 자리를 잃은 신격의 분노가 질병신으로의 좌절에 이유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분노로 인한 질병신으로의 좌절이 제시되면서, 오히려 그 반대에 서 있는 생산신의 성격이 확고하게 자리 잡힌다는 점에서도 두 신화의 유사성을 살펴볼 수 있다.

이와 유사한 예가 유대신화에도 전해진다. 일반적으로 아담의 짝은 이브(혹은

29) 해당 부분은 안사인본에서는 간략하게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진부옥본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동의용궁 할망은 널랑 저승을 가련 혹은 부패가 난, 할마님의 상가지 꽃을 도르려들언 딱허게 거꺼 아집데다. 거끄난 할망은 어질어도 부패가 난 곁는말이, 어떨려고 나 상가지 꽃을 무지려 가느냐? 왜? 나는 저승 가면 부뜰 디가 어시니까, 죽으나 사나 저승을 가도 할망 뒤에만 따라뎡기겠다. 할마님이 아무리 힘을 써가지고 어떤 집의 가그네 아덜을 낳던 딸을 낳던 난 적극적으로 따라뎡기명 포태를 주며는 석돌 전의도 몰로도 알르게 호고 귀로도 알르게호고, 열덜 2망 차기도 전의 유산도 시기곡, 난 아기 어멍 쫓 내어도 따라들영 아기 어멍에 본뎡 계병도 불러주곡 아기엔 급경, 만경, 정풍, 정세 불러주곡, 그냥 갈 때까지 옥을 때꼬지 열다섯 전의 할망 아기에만 들영 반시름을 허켄허연 영 둘이가 막 싸움데다. 문무병 『제주도 무속신화 열두본풀이 자료집』, 칠머리당굿보존회, 1998, pp.185-186

하와)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유대교의 전승에 따르면 아담은 이브 이전에 ‘릴리트(Lilith)’와 결혼한 바 있다. 하지만 아담이 힘으로 릴리트를 쓰러뜨려 자신의 밑에 눕게 하면서 둘의 관계는 깨지고 만다. 릴리트는 아담의 성행위를 비웃으며 아담을 쫓아버리고 홍해 근처로 옮겨가 살게 된다.<sup>30)</sup> 이 대립 이후 아담은 이브와 부부가 되면서 새로운 인간이 태어나고, 그 자식들이 번식으로 집단을 이루면서 인류가 번영을 하게 된다. 즉, 아담이 인류 탄생을 이끄는 생산신으로서 자리하는 것이다. 여기에 비해 릴리트는 악신으로 변모하여 낙원에서 추방된 인물로 그려진다. 이렇게 추방된 릴리트는 아담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잡아먹는 등 죽음의 신으로서의 면모를 보이게 된다.

<릴리트 신화>를 살펴보면 <삼승할망본풀이>와 유사한 지점들을 찾아낼 수 있다. 아이를 잡아먹는 릴리트의 악신으로서의 면모가 본래적인 속성이 아니기 때문이다. 릴리트는 아담의 첫 번째 짝으로 이브에 앞서 인류 생산을 담당한 생산신이었다. 하지만 아담 아래에서 성행위를 갖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악마의 이미지를 부여받은 채 추방되고 만다. 추방 이후의 릴리트의 행위나 행적은 이 과정에서 부여받은 이미지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즉, 아담과 이브가 생산신으로서 새로운 신격으로 자리하면서 기존의 릴리트에서 불행이나 죄악을 떠맡게 함으로써 남아 있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한다. 이것은 일종의 ‘재앙 옮기기’<sup>31)</sup>로 릴리트에게 모든 재앙을 옮겨 악의 이미지를 강력하게 부여함으로써 그 대적점에 선 아담과 이브의 생산신으로서의 면모가 확고해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양상은 <삼승할망본풀이>에서도 확인되는 지점이다. 거듭 반복하지만, 동해용왕따님애기는 신화적 출산을 이끄는 생산신이었다. 하지만 인간의 출생을 담당하는 새로운 산육신에게 자리를 잃게 되는데, 단순히 자리를 잃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대적점에서 서게 하는 것이다. 즉, 자리를 내어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오히려 동해용왕따님애기에게 질병신이라는 재앙을 옮김으로써 새로운 산육신의 지위가 공고히 되고, 직능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다. 이는 동해용왕따님애기의 질병신으로서의 성격이 확고해 질수록 명진국따님애

30) 高平鳴海, 이만옥 역 『여신』, 들녘, 2002, pp.286-289

31) J.G. Frazer, 이용대 역 『황금가지』, 한겨레출판, 2003, p.642



기의 산육신적 성격이 부각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새로운 산육신이 질병신을 관리·관장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신으로서의 지위와 위상은 더욱 높아지고, 이러한 산육신을 다루는 신화와 제의는 보다 확고한 기능과 위상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결국 신화를 구연하고 제의를 거행하는 본래적 목적과 맞닿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삼승할망본풀이>만으로 풀어내기 어려운 문제들이 다른 신화들과 견주어 살펴으로써 해석의 실마리를 얻을 수 있었다. <삼승할망본풀이>는 산육신의 신화이면서 질병신인 동해용왕따님애기가 주요하게 다루어진다는 점에서 특이성을 갖는다. 이러한 특이성은 <삼승할망본풀이>가 신의 출생에서 인간의 출생으로의 이행을 담고 있는 신화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이행의 과정에서 물러나는 신격에 재앙을 옮겨 그 속성을 완전히 탈바꿈시킴으로써 새롭게 자리하는 신격의 위상을 높이고, 직능을 분명하게 하였다. <삼승할망본풀이>에 나타난 이러한 특성이 <이자나기 이자나미 신화>나 <릴리스 신화>와의 비교를 통해 보다 분명하게 드러났다고 하겠다.

#### IV. 맺음말

주지하다시피 <삼승할망본풀이>는 매우 특수한 신화이다. 제주도라는 특수한 환경에서만 전승되는 신화라는 점에서도 특별하지만, 산육신의 내력을 푸는 신화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도 특수하다 할 수 있다.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또 해당 신의 성격에서도 여타 신화와 변별되는 특성을 갖는다.

하지만 이러한 <삼승할망본풀이>임에도 여러 신화와 공유하는 지점은 존재한다. 신화가 국가나 민족을 기준으로 전승되지만, 기본적으로 갖는 원형적 성격으로 인해 사교의 공유 지점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삼승할망본풀이>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서 여러 신화와의 비교는 당연한 귀결이라 하겠다.

본고에서는 <삼승할망본풀이>와 여러 신화의 비교 작업을 수행하였다. <삼승할망본풀이>가 한국 신화를 대표하는 작품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아니 오히려 한국 신화 중에서도 특수성을 갖는 작품이라 하겠다. 하지만 오히려 이런

특수성 속에서도 보편적 성격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이 비교 연구의 진정한 의미 지향이라 생각한다.

<삼승할망본풀이>를 관통하는 주요 지점은 산육신과 질병신의 대립에 있다. 이 대립의 과정과 결과에 의해 <삼승할망본풀이>의 가치 지향이 규정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질병신은 산육신과 출산 방식을 놓고 대립하게 되는데, 비정상적인 출산을 시도하면서 자신의 지위를 잃게 된다. 거드랑이를 통한 출산을 시도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는 신화적 문맥으로 살펴보면 신의 출생으로 볼 수 있다. 알영, 주몽, 젓부기 삼형제, 석가모니, 육종의 여섯 아들, 위미르가 낳은 요툰 등 아주 많은 신적 존재가 거드랑이를 통해 탄생하기 때문이다. 여러 신화와의 비교 작업을 통해 <삼승할망본풀이>가 신의 출생에서 인간의 출생으로 이행되는 서사이며, 이 과정에서 산육신이 교체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그런데 대립에서 패배한 동해용왕따님애기는 자리를 잃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저승할망으로 좌정하면서 자신의 성격을 정반대로 변모시킨다. 구삼승할망이 질병을 내리는 질병신으로 탈바꿈한 것이다. 이러한 급작스런 변화는 새로운 산육신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재앙 옮기기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떠나가는 신격에게 재앙을 모두 옮김으로써 새로 탄생한 산육신의 위상이 높아지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는 일본 《고지키》에 나타난 이자나기와 이자나미의 관계, 그리고 유대신화에서의 릴리트와 아담의 관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들 신화는 질병과 죽음을 담당하는 신격의 대척점에 산육과 생산을 담당하는 신격을 내세움으로써 그 직능과 성격을 분명하게 가져가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기에 동해용왕따님애기는 급격한 변모 양상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삼승할망본풀이>의 의문을 여러 신화와 견주어 살핌으로써 풀어냈다고 하겠다.

이렇게 여러 신화와 함께 논의를 진행함으로써 새로운 논점을 발굴하고, 기존의 논의를 보강하는데 활용할 수 있었다. 이런 작업이 보다 원활하게 자리하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신화 자료에 대한 쉬운 접근이 필요하다. 동아시아 신화 자료에 대한 정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모든 신화를 아우르는 작업은 아니기에 보다 확장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그래야만 진정한 의미의 신화 비교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본고 역시 하나의 초석이 되길 바란다.

【参考文献】

《古事記》  
《東國李相國集》  
《三國遺事》  
《世本》  
《帝王韻紀》

강정식 「할망본풀이의 전승양상」, 경기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발표논문, 2003, pp.17-32  
권복순 「<천지왕본풀이>와 <삼승할망본풀이>의 인물의 기능과 그 의미 -신직차지하기 경쟁신화소를 중심으로-」, 『어문학』 116, 한국어문학회, 2012, pp.185-209  
권태효 「인간 죽음의 기원, 그 신화적 전개양상」, 『한국민속학』 43, 한국민속학회, 2006, pp.43-71  
김은희 「제주도 <불도맞이>와 서울 <천궁불사맞이> 비교」, 『한국무속학』 30, 한국무속학회, 2015, pp.45-80  
김창일 「무속신화에 나타난 꽃밭의 의미 연구」, 『한국무속학』 11, 한국무속학회, 2006, pp.175-200  
김현선 「<삼승할망본풀이>의 여신 투쟁이 지니는 신화적 의미」, 『민속학연구』 17, 국립민속박물관, 2005, pp.179-208  
노성환 「한일 죽음기원신화의 비교연구」, 『일어일문학회』 34, 한국일어일문학회, 1999, pp.323-342  
배진달 『세상은 연꽃 속에』, 프로네시스, 2006, p.20  
손진태 『조선신가유편』, 향토연구사, 1930. pp.10-23  
심치열 「제주도 서사무가에 나타난 주인공의 연속적 서사진행과 그 의미 -<삼승할망본풀이>, <삼공본풀이>, <세경본풀이>를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학』 59, 한국언어학회, 2006, pp.233-262  
유보경 「가신신화에 나타난 인물형상과 성격의 상관관계 : 성주풀이와 문전본풀이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pp.1-70  
유효철 「서천꽃밭의 형상과 의미 연구 : <이공본풀이>와 <삼승할망본풀이>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pp.1-116  
이수자 「제주도 무속과 신화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8  
\_\_\_\_\_ 「무속신화 <생불할망본풀이>에 나타난 여신상, 여성상」, 『이화어문논집』 14, 이화어문학회, 1994, pp.25-48  
\_\_\_\_\_ 「삼신신앙의 기원과 성격 -불도맞이 및 생불할망본풀이와 관련하여-」, 현용준박사 화갑기념논총 간행위원회 편, 『제주도언어민속논총』, 제주문화, 1992, pp.241-264  
이현정 「제주도 서사무가 <할망본풀이>의 형성원리 연구 -<할망본풀이>와 <일렛당본풀

- 이>의 영향관계를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pp.1-82
- 일연, 김원중 옮김 『삼국유사』, 을유문화사, 2002, pp.66-72
- 정제호 「<삼승할망본풀이>의 서사 구성과 신화적 의미」, 『한국무속학』 32, 한국무속학회, 2016, pp.193-218
- 현승환 「생불꽃 연구」, 『백록어문』 13, 제주대학교 국어교육과 백록어문학회, 1997, pp.9-31
-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각, 2007, pp.1-859
- 高平鳴海, 이만옥 역 『여신』, 들녘, 2002, pp.286-289
- J.G. Frazer, 이용대 역 『황금가지』, 한겨레출판, 2003, pp.83-642
- Snorri Sturluson, 이민용 역 『에다 이야기』, 을유문화사, 2013, p.30

■ 접수일 : 2016년 10월 31일  
심사개시 : 2016년 11월 23일  
심사완료 : 2016년 12월 18일  
게재결정 : 2016년 12월 20일

K C I

〈要旨〉

韓国神話の普遍的性格と神話的意味

—<サムスンハルマンボンプリイ>を中心に—

本稿は韓国の神話の普遍的性格を点検し、世界神話との比較を通して個別の神話の意味を探すことを目的とする。このため、済州島で伝承される<サムスンハルマンボンプリイ>と様々な神話の比較した。<サムスンハルマンボンプリイ>が韓国の神話を代表する作品とは言えない。むしろ韓国の神話の中でも特殊性を持つ作品だといえよう。しかし、このような特殊性の中でも普遍的性格を見つげられるのが比較研究の真の意味を求めることだと考えられる。

<サムスンハルマンボンプリイ>を貫通する要は疾病神と産育神の対立である。この対立の過程と結果によって<サムスンハルマンボンプリイ>の価値が規定されるからだ。ここで疾病神は産育神と出産の方式をめぐって対立することになるが、非正常的な出産を試みながら自分の地位を失うことになる。脇を通じた出産を試みたためだ。しかし、こうした試みは神話的文脈の流れで見ると、神の出生と見ることができるだろう。閔英、朱蒙、ジェップキ三兄弟、釈迦牟尼、育種の六の息子、ユミルが生んだヨトゥンヘイムなど、非常に多くの神的存在が脇を通じて誕生したのである。このように様々な神話との比較を通じて<サムスンハルマンボンプリイ>が神の出生で人間の出生に移行される叙事であり、この過程で産育神が交代されることを確認できた。

ところで対立で敗北した東海竜王の娘さんは場所を失って消えるのではなく、あの世へのハルマンに鎮座し、自分の性格を反対に変貌させる。旧サムスンハルマンが疾病を与える疾病神になったことだ。このような急激な変化は新しい産育神の地位を確保するための災難移しの形で見ることができる。立ち去る神格に災いをすべて移すことで、新たに誕生した産育神の地位が高まっているのである。このような構造は日本《古事記》に現れた伊邪耶岐と伊邪耶美の関係、そしてユダヤ神話でのリリスとアダムの関係にも見られる。これらの神話は病氣と死を担当する神格の対蹠点に産育と生産を担当する神格を掲げることで、その職能と性格を明確に持つことになる。そのため、東海竜王の娘さんは急激な変貌の様相を示すしかないのである。

本稿では<サムスンハルマンボンプリイ>を様々な神話と比較することで疑問を解いた。

**The mythical meaning and the universal character of Korea mythology**

—Focused on <Samseunghalmangbonpuri>—

It purposes that the universal character of Korea mythology is checked and through the comparison among the World myth, to find the meaning of each myth. To do that, we carried out the comparison among <Samseunghalmangbonpuri> handed down from JeJu and several myth. It couldn't be said that <Samseunghalmangbonpuri> is the major work of Korea. We would say that it is one of the unique character masterpieces. However, in this kind of unique situation, finding out universal character is the true meaning.

It has a story that the opposition between bearing and God of birth and God of disease in <Samseunghalmangbonpuri>. It is because <Samseunghalmangbonpuri>'s value orientation is regulated in the result of the process this opposition. Here is, between bearing and God of birth and God of disease, they had a opposition, their position were lost as they tried out abnormal birth. However, these trials could be seen as the birth of God in the context of myth. Because they were borned from their armpit such as Alyeong, Jumong, Jecbugi three brothers, Buddha, Six sons of Ukjong, Jotunn who Ymir gave birth to and so on. Through the comparison among the myths, we could confirm that <Samseunghalmangbonpuri> was from the birth of God to the birth of human and in the process, is consists of the stories that changed God of birth.

However, Donghaeyongwang's daughter who failed to win the comparison, one's own personality is made in the opposite mode. Pro-samseunghalmang changed God of disease who has some diseases. It is seen that these fast changing, one form which spread disaster to have the high position of new God of birth. As spreading all of disasters to going away God, God of birth who is newly born gain the status.

This structure could be seen that the relationship of Izanaki and Izanami in 《Kojiki》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Lilith and Adam. It consists of content that they show obviously the ability and character as they show the godhead that Birth and Produce were taken care of. That's why Donghaeyongwang's daughter is very changeable character.

It is shown that the comparison between several myths and mysterious things of <Samseunghalmangbonpuri>.